



‘돈 멜초 와이너리의 36년만의 싱글 빈야드 신제품, DM01’

비냐 돈 멜초 디엠 01 2022

Vina Don Melchor DM 01 2022

지역	칠레 > 센트럴 밸리 > 마이포 밸리		
포도품종	까베르네 소비뇽 88% 까베르네 프랑 12%		
알코올	14.5%	용량	750ml
시음 적정 온도	13~15℃		
테이스팅 노트	붉은 과실의 강렬한 아로마와 플로럴 노트, 신선하고 생동감 넘치는 표현력이 특징이다. 뛰어난 우아함과 부드러움을 지니며, 매우 섬세하고 조화로운 탄닌이 긴 여운과 기분 좋은 지속성을 입안에 선사한다.		
페어링 TIP	붉은 육류/ 붉은 살 생선/ 단단한 치즈/ 훈제, 염장 음식/ 밀가루 음식(피자, 파스타 외)/ 매운 음식		



제품설명



비냐 돈 멜초(Vi a Don Melchor)는 한정판 ‘The Parcels’ 시리즈의 첫 번째 와인, DM01을 공개하였다. 이 시리즈는 매 빈티지마다 단 하나의 구획(Parcel)에서만 생산되는 와인이다. 칠레 와인 산업 최초의 아이콘 와인인 돈 멜초(Don Melchor)는 1987년에 출시되었으며, 하이엔드 까베르네 소비뇽 분야에서 세계적 기준으로 인정 받아왔다. 특히 이번에 출시한 DM01은 돈 멜초 빈야드의 Parcel #1의 돈 멜초의 가장 오래된 밭으로 1979년 필록세라 이전의 뿌리를 이어 받은 순수한 본질 그 자체인 구역에서 난 와인이다. 이 구획의 포도는 오랫동안 돈 멜초의 최종 블렌드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으며, 강렬한 과일 풍미와 뛰어난 섬세함을 기여해왔다. 프렌치 오크에서 15개월 숙성하였다. (new 64%, second-use 36%)

수상내역



2022빈티지 제임스 서클링 James Suckling 98점

와이너리



2019년 10월 공식적으로 Vina Don Melchor 와이너리로 독립하였다. 1987년 콘차이토로의 설립자 돈 멜초의 이름으로 런칭된 와인인 돈 멜초는 와인 스펙테이터 TOP 100 와이너리스트에 총 9회 선정되며 칠레 프리미엄 와인으로 자리매김하였다. 앞으로 돈 멜초 브랜드에 전략적으로 집중하기 위해 수석 와인 메이커 Enrique Tirado를 수장으로 비냐 돈 멜초를 공식 출범한다.

※ 와인의 이미지와 빈티지, 블랜딩 비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※ 와인은 직사광선이 없는 서늘한 온도에서 누워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.